8강 쾌락원리를 넘어서[or 죽음의 본능]-정신분석학 강의4

1. 외상적 신경증과 아이들의 놀이

◇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에서 나타나는 꿈은 환자를 사건의 현장, 즉 환자가 또 다른 경악 속에서 잠을 깨게 만드는 그 현장 속으로 반복해서 데리고 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놀이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실제 생활에서 그들에게 큰 인상을 끼쳤던 무엇이든 반복하며, 이런 반복을 통해 그 인상의 강도를 소산시키고 자신들이 그 상황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의 모든 놀이는 그들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 욕망, 즉 어른이 되어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경험의 불쾌한 성격이 반드시 놀이에 부적합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어린아이의 목을 검진하거나 아이에게 작은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이 무서운 경험이 그 아이의 다음 놀이 주제가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출처에서 오는 쾌락의 산물이 있다는 사실을 간관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경험의 수동성에서 놀이의 능동성의 상태로 변화해 감에 따라 그는 불유쾌한 경험을 그의 놀이 친구로 전이시킨다. 그리고 그는 이런 방식으로 대체된 인물에 복수하는 것이다.『쾌락원리를 넘어서』(1920)

-외상적 신경증 환자는 자신에게 외상을 주었던 그 사건을 꿈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쾌락은 흥분의 양이 감소하는 것에, 그리고 불쾌는 흥분의 양이 증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조우한 사건들, 그것이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지 간에, 놀이를 통해서 반복하려고 한다. 프로이트는 불쾌한 인상도 피하지 않고 놀이로 반복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에 주목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어떻게 해서 억압된 것의 위력의 표시인 반복 강박이 쾌락원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반복 강박을 통해서 다시 경험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자아에게 불쾌를 유발하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경험은 억압된 본능 충동의 행위를 겉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려했던 종류의 불쾌이고 쾌락원리에 모순되지 않는다. 즉 한 조직에 대한 불쾌이면서 동시에 다른 조직에는 만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고 주목할 만한 사실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반복 강박이 쾌락의 가능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과거의 경험, 그리고 억압된 본능 충동에조차도 만족을 가져올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낸다는 것이다.

(…) 반복 강박-쾌락원리보다 더 원시적이고, 더 기초적이며 더 본능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무엇-의 가설을 정당화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반복 강박이 '과연' 마음 속에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 어떤 상황에서 반복 강박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정신 생활의 흥분 과정을 지배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쾌락원리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았으면 좋겠다.『쾌락원리를 넘어서』(1920)

2. 반복 강박으로부터 죽음 본능으로.

-프로이트는 과학자적인 태도를 보인다. 외상적 신경증 환자에게 드러나는 반복 강박에 대해 그는 철저하게 숙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억압된 소망의 환각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3. 본능의 두 가지 경향, 삶 본능과 죽음 본능.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본능적 삶의 두드러진 이원론적 견해를 고려해 보기 위해 잠시 멈추어보자. 헤링E. Herring의 이론에 따르면 두 종류의 과정이 항상 살아 있는 물질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하나는 건설적이거나 동화적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적이거나 이화적이다.

생명 과정에 의해서 취해진 이런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우리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이라는 두 개의 본능 충동의 행위를 읽어낼 수 있을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눈감고 있을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쇼펜하우어 철학의 항구 속으로 배를 몰아온 것이다.

그에게 있어 죽음이란 '진정한 결과이자 연장된 삶의 목표'인 반면, 성적 본능은 삶에 대한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다. (…) 개체의 생명 과정은 내적인 이유로 해서 화학적 긴장의 소멸,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향하고, 반면에 다른 개체의 살아 있는 물질과의 결합은 그러한 긴장을 고조시켜 이른바 신성한 '생명 고취적 차이'를 도출해낸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와 관련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최적 조건이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신생활 및 신경 생활 전반의 지배적인 경향은 자극 때문에 생긴 내적 긴장을 줄이거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혹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바라 로우Barbara Low의 용어를 빌리자면 '열반원리Nirvana-Principle'이다.) 이런 경향은 쾌락원리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죽음 본능의 존재를 믿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쾌락원리를 넘어서』(1920)

-프로이트는 본능에는 상이하며, 심지어는 대립적이기까지 한 두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가설을 제안하게 된다.

-하나가 건설적이고 동화적인 본능, 즉 에로스적인 본능이라면, 다른 하나는 파괴적이고 이화적인 본능, 즉 타나토스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전자를 "생명 본능"으로, 후자를 "죽음 본능"이라고 이야기한다.

-죽음 본능이란 가설을 제안하면서 프로이트는 이 본능이 쾌락원리와 부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쾌락원리에 따르면 쾌락이 기본적으로 자극에 대한 흥분의 양이 감소할 때 가능한 것이라면, 불쾌는 자극에 대한 흥분의 양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생명체가 죽는다는 것은 최고의 쾌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극에 대해 전혀 흥분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면, 죽음이란 역설적으로 흥분의 양 자체가 제로가 되어버리는 쾌락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반'을 뜻하는 글자 'Nirvana'는 불(vana)이 꺼진(nir)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명이 완전히 소멸하면 우리는 일체의 불쾌가 무의미해지는 상태에 도달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게 된다는 것이다.

4. 사디즘, 죽음 본능의 한 가지 사례

◇바로 처음부터 우리는 성적 본능 속에서 사디즘적 구성 요소의 존재를 인식했다. 알다시피 사디즘적 요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도착의 형태로 한 사람의 전체 성적 행위를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전성기기의 조직'이라고 이름 붙인 것 속에서도 지배적인 구성 본능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대상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디즘적 본능이 어떻게 생명의 보존자, 에로스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사디즘은, 사실상 자기애적 리비도의 영향에 의해 자아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결국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죽음 본능이라고 생각해도 그럴듯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성적 기능의 봉사를 시작한다. 리비도 조직의 구순기 동안 대상에 대해 성적 지배를 달성하는 행위는 대상의 파괴 행위와 일치한다. 그러다가 드디어 성기기가 우위를 차지하는 단계에 이르면 사디즘적 본능은 재생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성적 대상을 압도하는 기능을 부여받는다.

자아에서 강압적으로 떨어져 나온 사디즘은 성적 본능의 리비도적 성분을 지향하며, 이 성분은 대상을 향해 그 뒤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의 사디즘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거나 혼합되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나 성적인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과 증오의 양가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쾌락원리를 넘어서』(1920)

-프로이트는 죽음 본능, 즉 파괴하고 이완시키는 죽음 본능의 사례로 사디즘(Sadism)을 이야기한다.

-사디즘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통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도착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구순기의 단계에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강하게 무는 경우가 있다. 프로이트는 이 행위가 성기기에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사디즘이라고 생각한다.

-사디즘에 사로잡힌 사람은 관계나 심지어 대상을 파괴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죽음 본능이 성적인 대상으로 향할 때 그것은 사디즘이라는 도착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죽음 본능이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아에게로 향할 때 그것은 마조히즘(Masochism)이라는 도착적 형태로 드러난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파괴하려고 할 때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도착된 성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5. 에로스와 파괴본능

◇이드의 힘은 개별 존재의 본래적인 생명의 의도를 표현한다. 이 힘이 본질은 이드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생명을 유지하고 위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외도는 이드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부세계를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고 가장 위험이 없는 종류의 충족을 찾아내야 하는 자아의 과제이다. 초자아가 새로운 욕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자아의 주된 업무는 충족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드의 욕구 긴장의 배후에 있다고 가정되는 힘을 본능Trieb이라 부른다.

이 힘은 정신생활에 대한 신체적 요구를 대변한다. 그것은 모든 활동의 최종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어떤 존재가 도달한 모든 상태로부터 이 상태를 떠나자마자 그것을 복구하려는 노력이 일어난다. 따라서 무수한 수의 본능을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다양한 본능들은 몇몇 소수의 기본 본능들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본능은 그 목적을 (전위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한 본능의 에너지가 다른 본능의 에너지로 이전됨으로써 본능들은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이 후자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두 가지 기본 본능, 즉 에로스와 파괴본능을 가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신분석학 개요』(1940)

-육체로부터 기원하는 우리의 욕망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자아는 현실원리에 따라 이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을 현실적으로 지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이드로부터 다양한 욕구들이 가능하지만, 그는 그 욕구들을 두 가지 본능으로 수렴시킨다. 하나는 생명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로스이며, 다른 하나는 죽음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파괴 본능이다.

-죽음 본능이 쾌락원리를 따른다는 프로이트의 지적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것인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